

2014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변성기 청소년의 가창교육 활성화를 위한 뮤지컬 지도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방 신 일

변성기 청소년의 가창교육 활성화를 위한 뮤지컬 지도방안 연구

Study on the efficiency of musical learning for
the activation of adolescent singing education in
the age of the change of voice

2014 년 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방 신 일

변성기 청소년의 가창교육 활성화를 위한 뮤지컬 지도방안 연구

지도교수 이 한 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방 신 일

방신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지 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한 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재 연 인

2013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V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2
3. 선행연구의 고찰	3
II. 이론적 배경	7
1. 가창지도의 중요성	7
2. 변성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	8
3. 음악교육에서의 뮤지컬 장르	12
III. 변성기 청소년의 뮤지컬 지도방안	16
1. 뮤지컬 발성법	16
2. 변성기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방안	17
3. 음악교육에서 뮤지컬 활동의 의의	25
4. 뮤지컬 활동을 통한 변성기 가창지도 방안	30

IV. 연구방법	38
1. 연구 대상	38
2. 연구 절차	39
3. 자료 처리	44
4. 연구 결과	44
V. 결론 및 제언	46
참 고 문 헌	50
부 록	53

표 목 차

<표 1> 성대길이의 변화	10
<표 2> 대상 분포도	38
<표 3> 가창과 뮤지컬의 관심도	39
<표 4> 수업 진행방법	40
<표 5> 설문지 빈도 분석	53

그림 목 차

[그림 1] 후두 연골 및 성인과 어린이의 후두	9
[그림 2] 흡기와 호기	17
[그림 3] 가창을 위한 올바른 호흡법	22

악보 목차

[악보 1] 황금별	33
[악보 2] 황금별	33
[악보 3] 황금별	34
[악보 4] 황금별	34
[악보 5] 황금별	34
[악보 6] 나비	35
[악보 7] 나비	36
[악보 8] 나비	36

ABSTRACT

Study on the Efficiency of Musical Learning for the Activation of Adolescent Singing Education in the Age of the Change of Voice

Shin-il Bang

Advisor : Prof. Han-na Lee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Music is the tool for expression of our emotions and for communication.

For adolescent, the emotional change is so variable. And music in which their inner side is disclosed can play an important role for character building and positive thinking. The music is classified into singing, instrumental music, music creation, and music listening.

Among them, the most useful tool for emotional expression is singing. Because people talk using their own voice to express their feeling. Likewise, singing is a kind of emotional expression with their own vocal melody. Also, singing has great influence on character building for adolescent because their voice in singing can help self-realization. These days, we can see that the singing take a great share of school class. But, adolescent get through voice broke and that they get to lose

their interest and confidence on singing.

Adolescent at this time keep away from singing which is very important tool for emotional expression by the sense of shame. Because there is no way to express their feeling, the emotional ups and downs get worse and that the possibility of school violence and adolescence delinquency might get high.

Does studying musical analysis or vocalization help students who suffer from emotional distress, indeed?

I considered this kind of problem and approached from new viewpoint which make student can get near to singing by musical, not by musical analysis or vocalization. Musical, one of a composite art genre, can respect one's individuality and grow positivity and creativity. Also, i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educating moral and communal people by reciprocal action. To prove these effects, I proceeded a musical class in school and positive result can be achieved by questionnaires.

As we can see, singing grafting with musical can change adolescent's negative recognition on singing and eventually make students healthy.

But, musical part in curriculum has many problems. At first, teaching materials and facilities are poor. And time is so limited that students can only play limited roles. Increasing after-school activity, supplying materials, expanding class can resolve these problems and produce positive effect to adolescents. Also, a music teacher may lack their ability to teach how to dance or express. So work in a team of music teacher and dance master may increase the effect. And teacher should respect their student from student's perspective and study how to interact variously. Then, the fear of singing may disappear and active participation make student love music. And eventually, music can take greater part in curriculum.

Key words: adolescent, voice broke, musical learning, singing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사람들과의 소통 도구로도 사용한다. 즉 삶에 있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사춘기 청소년은 감정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더욱 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음악은 청소년의 복잡한 심리를 이야기 할 수 있게 하며 정서순화와 함께 긍정적사고, 올바른 성격형성에 도움이 된다(방글, 2013). 이 때문에 경험주의 음악교육자들은 다양한 음악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강조하였으며, 음악을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발견에 이른다(권덕원 외, 2008, 74).

음악의 활동 영역에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나누어 져 있다. 그 중에서 청소년들의 감정을 도구 없이 표현하기 좋은 것은 가창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의사 표현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입으로 말을 한다. 가창도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선율 위에 감정표현을 하며 말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가창활동은 자신만의 목소리로 음악을 구현하는 표현활동과 음악흥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조정은, 2013), 오늘날 학교 수업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변성기를 경험하게 되고 가창에 흥미를 잃음에 따라 학교생활과 음악활동에 자신감을 잃기도 한다. 즉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가창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음악이라는 중요한 감정표현 수단을 멀리 하거나,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대중음악만을 찾는 경우도 있다.

최순이(2009)의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최근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가창만 하는 것이 아닌 춤과

연기를 통해 입체적이며 더욱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종합예술인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매력에 관심을 갖고 뮤지컬 공연을 자주 찾으며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다.

이에 본 논문은 뮤지컬이라는 종합예술을 통하여 가창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는 변성기 청소년들에게 음악활동의 관심도를 높이는 지도 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변성기 청소년의 가창에 대한 거부감과 심리적·생리적 부적응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구안한 뮤지컬 지도 방법을 청소년들에게 적용해 보고, 변성기 청소년의 음악활동과 가창의 관심도와 그 효과를 연구한다.

첫째, 청소년의 신체·생리학적 특징과 변성 단계의 심리적 변화를 알아본다.

둘째,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역사와 구성요소를 알아본다.

셋째, 뮤지컬의 발성과 변성기 청소년의 올바른 가창지도 방안을 알아본다.

넷째, 변성기 뮤지컬의 교육적 의미와 중요성 및 효용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다섯째, 뮤지컬 활동을 통한 수업방안을 구안한다.

여섯째, 연구 방안에 따른 수업 전·후 설문 조사한다.

일곱째, 설문 자료를 빈도 분석한다.

뮤지컬 활동을 통하여 변성기 청소년들에게 가창지도의 긍정적인 방향 안내를 위하여 연구하였고, 제한점은 다음과 같이 함축된다.

첫째, 교과서에 수록된 뮤지컬을 대표하는 곡과 어울릴 수 있거나,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곡으로 추가 구성한다.

둘째,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광주 SBS 방송아카데미 연기, 무용, 뮤지컬 반 학생들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러나 예체능을 전공하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과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나이가 일정하지 않은 범위다. 청소년기라는 시점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변성기가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이미 지난 학생들도 있었다.

넷째, 연구를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노래에 대하여 거부감이 심한 학생도 있었고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음악 수업이 없는 학생들도 있어서 수준 차이가 심했다.

다섯째, 본 연구와 부합될 수 있도록 음악 전공생 위주가 아니라 최근에 등록한 초보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선행연구의 고찰

선행연구 논문들을 고찰해 본 결과 본 연구의 변성기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발성법과 그 방향 그리고 뮤지컬 발성에 대한 연구와 교육적 효용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다음은 본 연구자가 연구한 ‘변성기’, ‘가창수업의 중요성’, ‘뮤지컬’의 키워드 순서에 따라 선행연구 고찰의 결과를 나열한 것이다.

김예려(2009)의 “중학교 학생들의 가창발성 지도 연구”는 변성기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하였고, 학생들의 지도법이나 가창현황을 설문지로 조사하여 그래프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눈에 알아보기가 좋았다. 변성기 학생에 맞는 호흡법과 발성법을 제시함 변성기 중학생의 가창발성지도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방글(2013)의 “변성기 남학생을 위한 악곡 선곡 및 지도 연구”에서는 요즘 빨라진 발육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변성기가 시작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초등학교 음악교육 과정에서는 변성기 청소년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가창 기피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변성기 남학생의 심리적인 부분과 변성기에 대하여 조사 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해보면서 악곡 선정과 지도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인해 심리적인 부분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은정(2009)의 “변성기 학생들의 효율적 가창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창교육의 중요성과 변성기의 성대에 대하여 연구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발성을 하였을 때의 문제점도 제시하였고 안정적인 호흡을 위한 아다지오 호흡법과 연구개의 강화, 레가토 연습을 위해 좋은 발음을 연구하였다.

김태연(2012)의 “중1 음악교과의 가창영역 학습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점차 교육과정에서의 음악시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으로 인하여 간단명료하고 효율적인 학습지도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1의 변성기를 고려하여 변성기에 대하여 조사 하고 올바른 호흡과 발성 올바른 자세를 연구하며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정된 음악교과서 16종을 조사 하였고 공통된 제재곡을 찾고 학생들의 음역대와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시설물의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현 음악교육의 실정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제재곡 중 학생들에게 무리가 되는 음역은 이조를 하고 악보도 쉽게 다시 사보하는 방법으로 거부감을 덜어주는 학습지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김명심(2009)의 “뮤지컬 창법에 대하여”에서는 뮤지컬에 관한 정의와 특성, 구성요소, 음악구조, 역사 등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뮤지컬 발성이지만 기본적인 발성은 동일한 바탕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진성과 ‘진성과 가성’을 혼합한 창법과 가성창법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최순이(2009)의 “고등학교 뮤지컬 교육 활성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악곡 장르를 설문 조사 한 결과 클래식 보다는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우리 음악교육에서도 클래식이나 국악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시대에 맞추어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뮤지컬이나 재즈, 크로스오버, 영화음악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윤주희(2010)의 “예술과 통합하는 대학 교양 교육의 현황과 지향방안 연구(몸으로 배우는 예술통합 교양과목 체험뮤지컬 수업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예술통합교육을 이야기 하였다. 연극, 음악, 춤의 교육적 효용성을 연구 하였고 대학수업에서 뮤지컬 체험통합 설문조사를 실행하여 만족도와 공연 전후의 자신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예술’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예술통합교육의 가치와 효용성은 큰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박찬수(2010)의 “뮤지컬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제작과정 연구”에서는 뮤지컬을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였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변화와 효과를 연구하였고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 그에 설문지를 통하여 학생들의 답변을 대신 들어 봄으로 인하여 뮤지컬 수업의 교육적 활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었다.

최성욱(2011)의 “대학생의 교양 무용수업 참여 동기가 생활 스트레스와 무망감 및 우울함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무용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역량들을 통합함으로써 조화롭게 작용하고 민첩성, 지구력, 평행성, 협응성, 정확성, 같은 부분들도 증진되며 자기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선행 논문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 변성기의 생리학적 현상과 심리적 현상에 대하여 조사하고 올바른 발성과 자세, 호흡, 악곡분석, 발음 교정등 문제점 분석과 해결 방안은 제시를 잘 해주고 있지만 변성기 청소년의 가창에 대한 심리적 현상인 두려움과 거부감은 보다 효과적인 연구가 미비하였다. 또한 뮤지컬에 관하여 뮤지컬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흥미 그리고 발성법 활성화에 대하여 제시해 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그리고 변성기가 지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으며 변성기 청소년의 활성화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변성기 청소년에게 있어서 올바른 가창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음악교육에서 가창의 의미를 살펴보고, 가창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장르

인 ‘뮤지컬’을 통하여 가창활동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을 해결하여 음악교육에서 가창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창지도의 중요성

변정자는(1988) 가창에 대하여 “아동, 학생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음악과 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과의 중심적인 존재라 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 음악이 채용된 이래 보편적인 원칙”(p. 33)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가창은 음악교육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신만의 음색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또 다른 의사소통이다. 음악 활동에는 악기, 기악, 창작 등 많은 활동이 있다. 하지만 가창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며 발성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각 개인의 말투와 음색은 모두 다르지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소리를 내어 말을 한다. 자신의 몸을 악기로 하여 표현하는 가창 역시 마찬가지다.

유덕희의(1981) 음악교수법에서는 가창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음악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코다이(Zoltan Kodaly)는 ‘누구나 지니고 있는, 또 이와 동시에 모든 악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목소리만이 일반적인 음악문화의 기초로써 공헌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목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악기이며, ‘노래 부르고 싶은 것은 모든 정상적인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라며 가창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또한 실제적인 필요성에서 볼 때 가창은 음악교육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바람직한 일이다. 가창이야말로 음악의 활동의 기초이고, 이 방면의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음악성이 결핍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음악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가창의 기교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 하는 기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창에 있는 것이라고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p. 304)

고 하였다. 이처럼 가창은 음악활동의 핵심이며 기쁨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김태연의(2012) 논문에서는 각각의 음악영역활동 중 가창에 대하여

중. 고등학교 음악과 수업 중 가창, 기악, 감상, 창작 등의 학습은 각각의 영역 활동들을 통해

학생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다양한 음악 작품들을 접함으로써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능력을 기르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창활동은 자기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마음껏 성장시켜 주며, 풍부한 감성과 안정된 정서를 갖추게 하며 심미적 체험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데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음악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p. 14)

고 하였다. 이처럼 가창은 자신만의 목소리로 자신을 구현하고 상황에 맞게 능동적인 감정표출 수단으로써 과도기적인 성향을 갖은 사춘기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감수성 함양과 자신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표현능력을 상승시켜주고 이로 인하여 올바른 인격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창수업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2. 변성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

1) 변성기의 의미와 생리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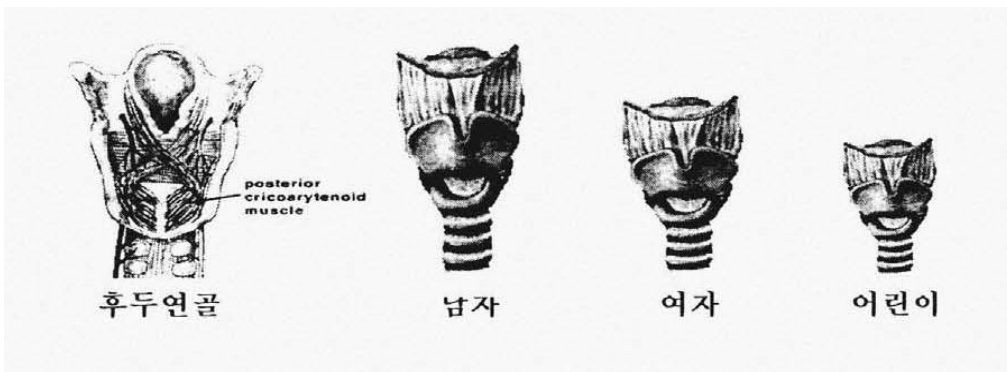
변성기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사춘기에 성대에 변화가 일어나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 12세~15세이다”라고 나온다. 의학적으로 간호학 대사전(1997)에서는 “제2차 성장에 의한 인두의 급격한 성장에 의해서 목소리가 변화하는 시기를 말한다.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경부터 시작하며, 변성기간은 3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는데 개인차가 크다. 이 시기에는 애성, 소리의 변전(變轉), 높이의 불안정 등이 있으며, 이것을 지나면 남자는 1옥타브, 여자는 3도 낮아지며, 어른 같은 소리가 된다. 변성기에는 소리의 남용을 피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이렇듯 변성기는 일반적으로 남·여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으로 신체적 변화의 시기이다.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서 그 시기가 늦게 오는 편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 정신적인 성장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육체적인 성장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육체적으로 가장 급격한 성장을 하는 시기가 사춘기이다. 청소년기로도 불리는 사춘기는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성적 기능이 활발해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생식기능의 완성이 시작되며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 중 후두의 발달로 인해 목소리를 듣고 어느 정도의 남·여 구분을 하는 기준도 생긴다. 이런 소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변성기라고 한다. 변성기는 남·여 누구나 겪는 시기로써 개인과 성별에 따라 그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문영일은(1991) 변성기에 대하여 “변성기의 연령에 있어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14~15세, 여학생은 13~14세에 변성이 되나 여학생은 별로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변성이 진행 된다. 이러한 변성은 도시사람이 농촌 사람보다, 또 적도 근처에 사는 인종일수록 변성기가 빨리 온다고 한다”(p. 219). 고 이야기 하였으며 기초 음성학과 발성기법에서는 변성기에 대하여 “보통 변성기간은 6~8주간에서 1년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2년 반 정도가 경과하는 사람도 있다”(p. 21) 라고 기술하고 있다.

변성기 이전의 남자와 여자의 후두 크기는 별 차이가 없지만 2차 성징 이후에는 남자의 후두가 여자에 비해 눈에 확 띌 정도로 커지고 위치도 아래로 하강한다. 후두의 발달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성대의 길이도 길게 자라나며 목소리가 변화하게 된다.



[그림1] 후두 연골 및 성인과 어린이의 후두

<표 1> 성대길이의 변화

성별	시기	6세 가량	사춘기 전	사춘기 종료 후	성인
	남	자	9~10 mm	9~10 mm	14~21 mm
여	자	12~15 mm			12~16 mm

문영일의(1990) 음악교수법에 의하면 “변성의 시기는 시간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서 수년이 걸리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초경보다 변성이 선행하기도 한다”(p. 229)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춘기 이후 남자 후두가 여자보다 더 커지고 성대가 길어지다 보니 목소리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 변성기에 나타나게 되는 몇 가지 현상들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문영일, 1992, p. 59).

- 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목소리가 변한다.
- ② 가볍게 노래를 불러도 곧 목이 아파진다.
- ③ 한 숨에 노래를 하던 것이 몇 번이고 숨을 쉬지 않으면 노래할 수 없다.
- ④ 목소리가 쉰다.
- ⑤ 목소리에 윤기나 부드러움이 없어진다.
- ⑥ 높은 소리를 내려하면 췌소리와 같은 쉰 소리가 나든지 의도하지 않아도 소리가 나다가 끊어진다.
- ⑦ 높은 소리나 낮은 소리를 내기가 쉬워진대든지, 반대로 전혀 나오지 않든지 한다.
- ⑧ 음이 틀린 것을 알고 있어도 생각대로 음정을 조절할 수가 없다.
- ⑨ 목소리를 내는 것이 괴롭고 때때로 전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 ⑩ 낮은 목소리가 갑자기 흉성으로부터 가성으로 바뀐다.

⑪ 높은 소리가 나오지 않고 낮은 소리가 잘 나온다.

청소년들은 변성기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변성 현상의 기본 지식들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문영일, 1984, pp. 60-61).

① 변성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면 의학적 검사를 받아 성악 방면으로 나가고 싶은 어린이는 주의를 기울여 하지 말아야 한다. 성역(聲域)을 넓히는 연습이나 성종의 파트를 결정짓는 일은 절대로 삼가며 고음이 지속되는 곡이나 높은 음이 포함된 오페라의 아리아 같은 것은 피하고 부드러운 발성 및 복식 호흡을 한다.

② 변성 중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목소리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음악 감상, 창작 및 기악 등을 한다.

③ 변성 후기에 이르면 음정도 차차 안정되고 성역(聲域)은 하강하며 성량이 풍부하게 되므로 그에 맞는 적절한 차원의 가창을 시도한다.

2) 변성기에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

청소년 시기에는 성적 기능의 발달로 감수성과 흥분성이 높아져 정신적 동요가 심해지는 때이다. 이 시기에 중학생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동경하는 이상과의 거리감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이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음악과 대화하여 탈피하고 이러한 음악은 상호간의 대화를 보존해주므로 신뢰성 및 공감대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권이중, 1997, p. 309).

변성기 때의 심리적 변화를 사춘기라고도 부른다. 또한 신체적 변화로 인해 정신적 갈등을 나타낸다. 변성기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인 변화로 인한 정신적 갈등으로 감정의 변화가 심해져 우울증세, 불안감, 짜증과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폭행을 한다.

둘째, 감동을 잘하며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진다.

셋째, 자아의식이 강하여 다신이 공감하는 세계를 찾아 방황한다.

넷째, 쉽게 피로를 느껴서 사람들은 대하기 싫어하고 부모나 교사와 충돌이 잦아진다.

다섯째, 부모의 명령이나 견해에 반발하고 비판적이며 목적성이 격려된 행동으로 인해 소년 범죄가 일어나기도 한다(김은정, 2009, p. 12).

이처럼 감정 변화가 큰 변성기 때에 감정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더욱 부정적이고 과도기 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남자의 경우 약1옥타브, 여자의 경우 약3도가 낮아진다. 이로 인해 사춘기 남학생들의 목소리 변화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고 가창에 대한 흥미마저 잃게 만든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음악교육에서 뮤지컬 장르

1) 뮤지컬의 정의와 특징

차태호에(2007) 의하면 “뮤지컬은 기악과 노래, 연기, 무용, 무대장치 등이 종합 구성되어 있고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 종합예술이다. 뮤지컬은 불과 100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인류가의 모든 예술 장르가 혼합되어 있으며, 또한 현대문명의 가장 큰 특성인 합리성과 과학성, 대중성이 혼합되어 있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문화적 욕구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예술 형태이다”(p. 13). 이처럼 기악, 노래, 무용, 연기, 무대장치가 종합구성 되어 있는 뮤지컬은 관객과의 소통이 있다. 또한 이상적인 부분들을 감정표현 하여 공연하는 사실적인 공연과는 다른 낭만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명심은(2009) 뮤지컬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뮤지컬은 ‘총합극(Total Theatre)’ 이며 기존의 연극적인 요소에 음악과 춤이 곁들여진 종합예술이다. 물론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 배우, 가수, 무용가, 의상 디자이너들의 공동 작업은 당연하다. 또 뮤지컬은 ‘프리젠테이션 극 (Presentational Theatre)’ 무대 위의 배우가 관객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공연하기 때문이다. 뮤지컬에서 배우가 극중의 상대보다는 관

객을 향해 노래 부르고, 또 관객이 여기에 박수로 답례 하는 것은 프리젠테이션의 극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뮤지컬은 또한 '대중극(Popular Theatre)'이다. 뮤지컬 공연은 지적인 자극 보다는 보고 듣고 즐길 거리를 찾는 관객들을 충족시켜 주는 요소를 듬뿍 안고 있기 때문이다. 뮤지컬은 향락적이고 오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런 공연 양식을 견지하면서 크게 타락하지 않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극본은 향락적인 것이다. 이러한 대중극으로서의 성격은 상업성과 연관을 맺고 있기도 하고 사회 윤리와의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뮤지컬은 그 형식상 특수한 '약속(convention)이 필요한 극'이다. 여기서 약속이란 극작가, 연기자, 관객이 묵시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인데, 뮤지컬에서 이 약속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p. 3).

뮤지컬은 극중 배우의 감정을 노래인 뮤지컬 넘버에 잘 표현하여 관객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러워지게 하고 그로 인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런 종합 예술은 오페라와 연극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의 공연들을 분별하는 특징은 바로 음악이다. 연극은 구별하기가 쉽다. 음악적인 요소보다는 대사나 정극적인 요소들이 더욱 많이 드러난다. 배우들의 몸짓이나 목소리로 감정을 표현하며 관객들과 소통한다. 연극이라는 장르와 다르게 음악극인 오페라와 뮤지컬은 형식이 비슷하고 음악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분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둘을 다른 형태의 음악극이다. 오페라는 종교음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전적인 경향이 강하다. 문학적인 요소와 고전주의적 음악형식이 많이 포함이 되고 연극과 춤 보다는 음악적 요소인 아리아, 중창, 합창 노래가 주가 되는 장르이다. 또한 벨칸토 창법 등 성악적인 오페라 발성으로 노래한다. 뮤지컬은 대중적인 것이 큰 특징이다. 음악도 오페라와는 달리 대중적인 발라드, 레게, 랩, 재즈, 팝 등 대중의 기호에 맞는 노래를 선택 한다. 요즘에는 뮤지컬에 각 나라의 민족음악적인 요소들이 접목되면서 나라마다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 뮤지컬들도 만들어 지고 있다. 또한 배우가 노래, 춤, 연기를 모두 한다.

2) 뮤지컬의 형태

박찬수(2010)에 의하면 뮤지컬의 형태는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희극적

요소와 해피엔딩인 뮤지컬 코미디(Musical Comedy)가 있고 노래나 춤보다는 극적 구성이 우위에 있는 북쇼(Book Show)가 있다. 또한 극적 요소보다는 춤, 무대장치, 의상 등 특별효과를 중시하는 스펙타클쇼(Specacle Show)가 있으며 춤, 연기, 노래를 모두 잘하는 한명의 배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스타비이클(Star Vehicle)이 있다. 소규모의 북쇼라고 할 수 있는 앙상블 쇼(Ansemble Show), 음악에만 집중하여 한 주제로 만들어지는 레뷰(Reveu), 오페라와 많은 부분이 비슷한 형태로 연기, 춤 보다는 음악을 중시한 오페레타(Operetta), 마지막으로 오페레타의 형태를 중심으로 나머지 형태들을 모두 결합하여 구성한 뮤직 비이클(Music Vehicle)이 있다.

3) 음악교육에서의 뮤지컬 역할

노래, 춤, 연기가 합쳐진 공연 양식을 ‘뮤지컬(Musical)’이라고 부른다. 미국 ‘브로드웨이’ 에서 성공을 이룬 대중 예술로 노래가 중심이 되어 무용과 극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종합공연물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음악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 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는 전인적 인간이 되는데 기여한다”(pp.161-162). 이런 점에서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채선영은(2012) 뮤지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음악, 춤, 미술, 연극 등의 요소를 갖춘 뮤지컬은 다양한 예술의 형태를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 간의 통합으로 기능과 이론 위주였던 음악교육에서 벗어나 음악의 내면화와 생활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재가 된다. 또한 뮤지컬이 지닌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 방식

은 학교 음악수업과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음악과의 거리를 좁히고, 학생들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pp. 1-2).

이처럼 뮤지컬은 음악의 생활화에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독창적 개성을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뮤지컬은 학교음악 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Ⅲ. 변성기 청소년의 뮤지컬 지도방안

1. 뮤지컬 발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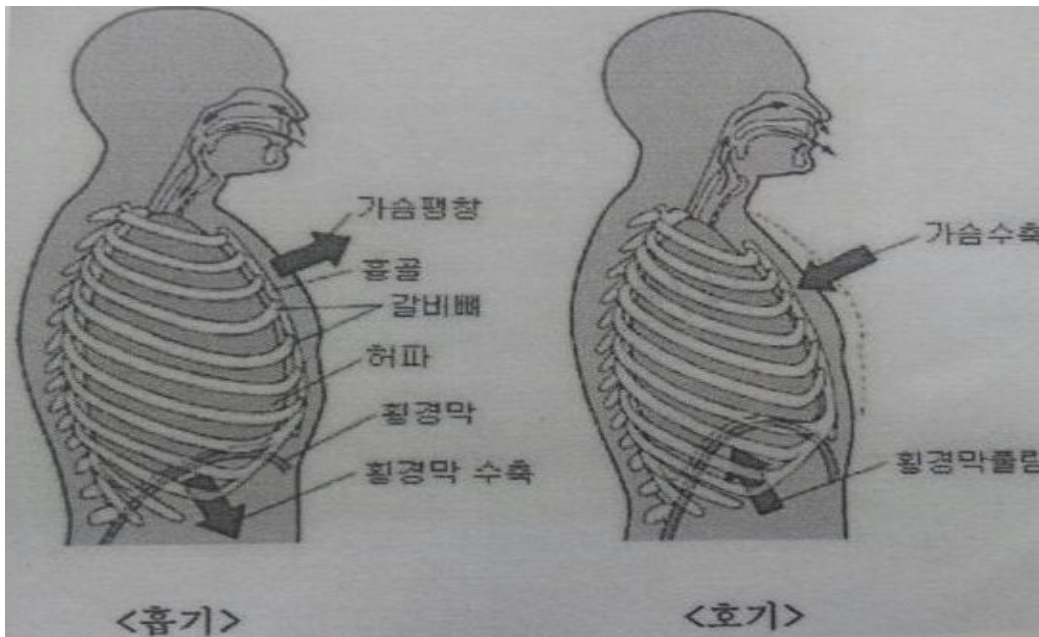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뮤지컬과 성악 그리고 대중음악의 발성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기본적인 발성은 한 줄기라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김명심은(2009) 뮤지컬 발성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기’에 의해 성대를 진동시켜 음성을 만들어 내는 생리현상으로 ‘조음’과 함께 말소리를 만들어 낸다. 이를 위해서는 후두의 여러 근육이 협조적으로 작용하여 ‘성문’을 닫고 또 성대의 접촉면을 예리하게 하여 적당히 긴장시킨다. 음악에서는 성악의 소재로서 노랫소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성대 조절법’ 뿐만 아니라 ‘호흡법’, ‘조음법’도 포함된다. 발성법은 인간이 태어날 때 내는 ‘첫 번째 울음소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한다. 민족에 따라 언어, 종교, 기타의 문화사회적 환경, 기후, 풍토 등의 자연환경, 악기의 영향, 형질인류학적 발성기관의 특징 등의 차이와 그 영향으로 민족 고유의 발성법을 갖게 되고, 그 고유한 발성법에 따라 모국어를 말하고 노래를 부른다. 이것이 ‘민족음악의 발성법’이다. ‘민요’는 일반적으로 이 발성법으로 부른다. 유럽의 예술음악에서는 ‘벨칸토 창법’으로 부르는 발성기법이 발달해 있다. 이 방법은 ‘복식호흡’을 써서 복근을 훈련함으로써 ‘흡기’로 인해 내려간 횡격막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호기’의 다량 유출을 방지하면서 숨을 조절하여 내뿜으며, 자연 상태 그대로의 위치에 있는 성대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상반신을 편안하게 하고 흉강, 인후강, 구강, 비강에 충분하게 소리를 공명시킨다. 또한 혀와 입술 등 ‘조음 기관’도 충분히 기능적으로 활용하여 아름다운 목소리에 명석한 발음이 나도록 한다. 이 발성법은 생리적으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독특한 바이브레이션과 자유롭고 풍부한 표현능력을 지니고 있다(pp. 7-8).

이처럼 성악적인 발성을 근본으로 하여 가사와 감정을 표현하고 조음 기관 활용으로 아나운서가 말하듯 가창해야 한다. 관객들의 귀에 선율만 들리는 것이 아닌 정확한 가사의 전달, 호흡과 떨림을 이용하여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성을 배우고 싶어서 성악가에게 레슨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목에 무리가 안가는

올바른 발성을 배움으로 인해 자신의 소리와 가창 능력이 향상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발성은 자신이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말하고 있는 말소리이며 그 말소리를 버리면서 너무 공명에만 신경 써서 가사를 버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림2] 흡기와 호기

2. 변성기 청소년의 올바른 가창 지도방안

변성기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목에 무리가 가지 않은 방법은 무엇일까?

성악적인 발성이 가장 생리적인 발성법이고 변성기 청소년에게 있어서 올바른 발성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성악적인 방법으로서의 변성기 청소년의 가창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였다.

1) 자세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듯이 노래를 하기 전 학생들에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경직되어 있는 몸을 풀어줄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성악은 목을 포함한 몸 전체에서 노래에 필요한 많은 근육들이 함께 쓰였을 때 좋은 자세, 호흡과 발성, 공명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람마다 타고난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근육양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운동과 훈련을 통해 노래에 필요한 근육을 키울 수 있다.

① 가벼운 러닝 및 걷기 30분

② 윗몸일으키기 3세트(1세트당 10회)

③ 팔굽혀펴기 3세트

④ 몸은 반듯이 누워서 다리를 45도 다리 들었다가 내리기 3세트(다리를 내릴 때 숨을 뱉는다)

가창을 하는데 있어 1차적 조건으로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바른 자세에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노래를 끝까지 부르는데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호흡과 연결 되는 것이 발성인데 나쁜 자세로 노래하게 되면 호흡을 하는데 방해받게 되고 호흡이 잘 안되면 발성에 악영향을 끼쳐 좋은 음색의 소리와 음량이 나오기가 힘들어진다. 자세, 호흡, 발성은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창하는 과정에 있어서 1차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변성기’ 소리의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노래에 대한 흥미도 잃게 되는데 기본적인 자세부터 바르게 함으로써 좋은 소리를 내고 변성기를 잘 보낼 수 있는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된다. 자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몸자세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기악에 비해 가창은 몸이 악기이다. 노래를 부르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목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목에 좋은 것을 먹고 목에 무리

가 가지 않게 노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창은 목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몸을 다 이용하여서 불러야 좋은 음색과 음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몸의 자세를 바르게 잡고 노래를 해야 한다. 여기서 노래를 부를 때 몸의 바른자세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발은 자기 어깨 넓이 정도 벌리는 각도로 선다. 무대에 따라서 왼발이나 오른발이 다른 한발보다 조금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무게의 중심은 양 발바닥에 균형 잡히게 두도록 한다.

둘째, 무릎은 지나치게 힘을 주거나 굽히지 않아야 하며 배에 주어지는 힘을 뺏어가게 하면 하지 않고 유연하게 해주어야 한다.

셋째, 목은 척추와 연결 되어 있으므로 곧게 한다.

넷째,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두 팔을 내린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목구멍이 좁아지게 되고 후두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날카롭고 딱딱한 소리가 나게 된다.

다섯째, 가슴은 너무 펴거나 쳐지게 놔두지 말고 살짝 들린 느낌이 들 정도만 내민다.

여섯째, 배도 너무 내밀거나 당기지 않도록 한다.

일곱째, 골반은 상체를 지탱해 주는 것으로 하복부 장기를 받쳐주는데 뒤로 약간 당기는 느낌을 갖는다.

여덟째, 꼬리뼈는 앞쪽, 안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힘을 준다.

(2) 기관별 자세

첫째, 입모양이다. 노래에서 레가토(Legato)를 만들어 주는 모음의 역할은 아주 기초적이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음은 “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목, 입, 코를 거쳐 나오면서,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거나 하는 따위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네이버 국어사전). 모음을 잘못하게 되면 좁고 답답한 소리나 어둡고 무거운 소리가 나오게 되는 이유를 모음의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모음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각 모음의 입모양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호흡을 들이 마실 때 하품하듯이 마시면 연구개가 위쪽으로 들리면서 입안 공간이 크고 넓어진다. 이 공간들이 무너지지 않고 연구개가 다시 내려오지 않게 유지하며 모음 아, 에, 이, 오, 우 발음을 입모양에 신경써서 연습한다.

둘째, 턱의 자세다. 노래 할 때 너무 앞으로 나오거나 입을 크게 벌리기 위해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턱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혀에도 같이 힘이 들어가 모음, 자음발음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턱은 어금니 사이가 떨어질 정도로 입을 벌려 턱을 떨어뜨리고 상하좌우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며 안쪽으로 약간 당겨주어야 한다.

셋째, 목의 상태다. 모든 모음발음은 목에서부터 시작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목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중간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 하품하듯이 호흡을 마시고 내뿜을 때 목구멍이 닫히지 않게 하고 후두의 위치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넷째, 혀의 상태다. 혀는 보통 혀끝이 아랫니의 안쪽에 살짝 닿게 놓는다. 그리고 최대한 힘을 빼고 하품해서 만들어 놓은 입안 공간을 최대한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긴장으로 인해 혀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경직 되면 모음발음 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딱딱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마음자세다.

김혜정은(2007) 발성법 강의 노트에서 “표현을 위한 마음의 자세는 음악은 감정의 언어이므로 진실해야 하며, 이러한 진실이 노래할 때 표현 되어야 한다”(p. 55). 개인의 진실한 마음이 표현 되어 노래를 부를 때 관객들 또한 노래에 대한 이해와 정서 교감이 되고 몸과 마음에 확 와 닿게 된다. 진실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에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여야 한다. 가사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표현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은 책이나 주위의 경험담을 듣고 이해하도록 한다.

2) 호흡법

모든 노래를 부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다. 호흡은 노래를 부르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게 해준다. 변성기에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잘못된 호흡법을 배워 사용하게 되면 오랜 습관으로 남아서 쉽게 고치기도 어렵고, 성대에도 무리를 줘 자주 목이 쉰다거나 성대 결절, 후두염 등 각종 질환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성악에서 사용되는 호흡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변성기 남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호흡 훈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호흡은 평상시 생활에서 하는 들숨과 날숨이 있다. 그러나 성악의 호흡에서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4단계의 호흡을 하게 된다.

첫째, 호흡을 들이마시는 들숨 단계이다. 들숨에서는 코와 입으로 같이 호흡을 마시고 하품할 때를 생각하며 연구개가 위로 올라 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어깨가 위로 들리지 않도록 하고, 호흡을 깊고 많이 마시겠다는 생각에 과도한 호흡을 하지 않도록 한다. 어깨가 들리고 과도한 호흡을 하면 횡격막과 복부를 단단하고 굳어지게 만들어 좋은 발성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둘째, 호흡을 유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말할 때처럼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것으로써 근육이 호흡을 조절한다. 들숨과 날숨의 중간인 유지 할 때 성대가 붙어있고, 상복부가 탄력을 얻게 되며 복부에서 힘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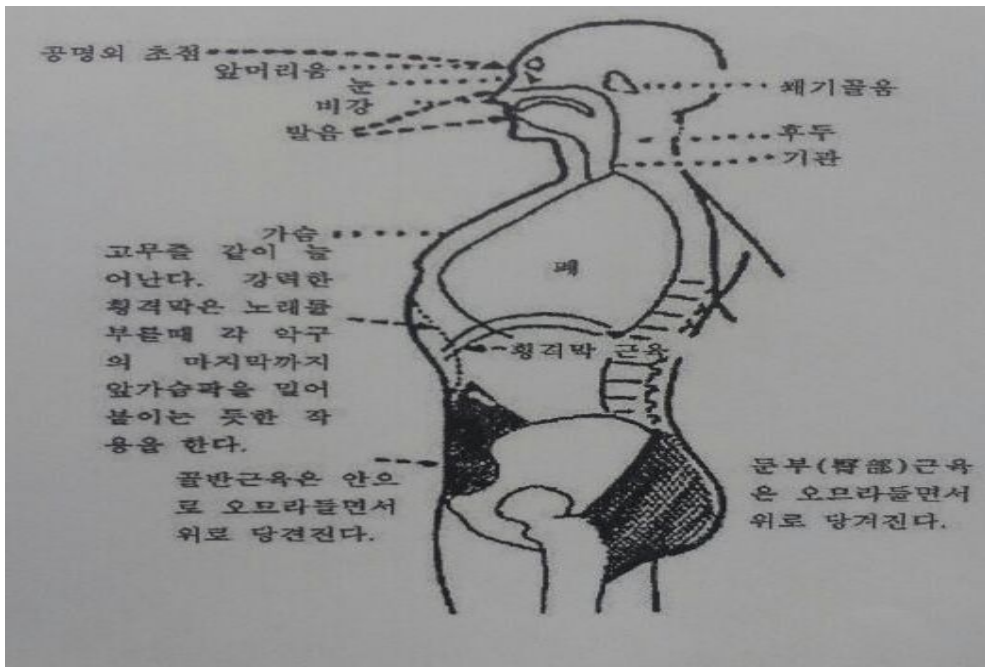
셋째, 호흡을 내보내는 날숨 단계이다. 들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악보의 한 프레이즈(phrase)를 생각하며 음들이 연결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눠서 밖으로 내보낸다. 목을 포함한 몸의 여러 기관 근육들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면 일정하게 날숨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 호흡이 짧아져 음을 길게 끌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넷째,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들숨을 하는 단계이다. 한 곡의 노래를 부를 때 처음의 들숨을 유지한 채 끝까지 노래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악

호흡의 4단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노래해야지만 완창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호흡단계에서 날숨이 끝나고 다시 들숨을 마실 때 편안한 상태로 마시지 못한다면 이 또한 몸에 무리를 주어 호흡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로 들숨을 해 주어야한다.

박세원은(1997) 코르위봉겐에서 “숨은 자연스럽게 들이마시되 코로 꽃향기를 맡는 것처럼 하면 효과적이다”(p. 8)라고 하였다.

문영일은(2004) 호흡과 발성에서 “호흡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는 비강과 구강의 흡기상태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횡격막 전체에 이르는 팽창과 수축을 주의하면서 윗니와 아랫니를 다문상태로 천천히 ‘S-소리’(Hissing)를 길게 냈을 때 동시에 호흡한 공기를 조금씩 내 보내는 방법이 있다”(p. 29)고 하였다. 이런 호흡운동을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연습 하다보면 운동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



[그림3] 가창을 위한 올바른 호흡법(Roma, 1975, p. 16).

3) 발성법

호흡의 날숨을 할 때 성대를 진동 시켜 소리를 내는 것이 발성이다. 가창에서 좋은 발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더욱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변성기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올바른 발성법을 배우고 사용하면 성대를 아끼고 보호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정성은의(2007) 변성기 가창지도에 대한 연구와 문영일의(2004) 호흡과 발성을 탐색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발성을 하기 전 준비운동을 한다. 목과 어깨, 혀, 입술, 얼굴의 안면근육 등 성악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근육들을 가볍게 풀어줌으로써 근육이 놀라지 않게 하고 무리한 발성이 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허밍(Humming)과 입술떨기로 익숙한 노래들을 따라 부르게 한다. 허밍과 입술떨기로 노래를 부르면 소리를 내는데 불필요한 힘을 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성대와 주변 근육들의 쓰임에 대해서도 느껴볼 수 있다.

셋째, 피아노의 가온도에서 도미솔미도와 같은 간단한 스케일로 발성을 시킨다. 처음 발음은 모음 이로 시작하게 한다. 변성기 학생들은 고음이 잘 나지 않고, 자신의 소리를 통제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소리 내는 것에 있어 자신감을 잃고 소극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소리내기에 부담감이 덜한 가온도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반음씩 올라가거나 내려가며 발성 공부를 시키는 것이 좋다.

넷째, 학생이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게 칭찬과 격려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갑작스런 소리 변화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학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다섯째, 자신 있게 소리를 내기 시작 하면 모음을 이, 에, 아, 오, 우로 바꿔주며 천천히 발성 연습을 계속 시킨다. 모음은 호흡을 연결시켜주고 단어의 기본 바탕이 되므로 소리를 낼 때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모음이 바뀔 때마다 바른 입모양으로 소리 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준다.

여섯째, 스타카토로 발성을 시킨다.

정성은은(2007) 변성기 가창지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변성기에 학생들은 음색이 퍼진듯하면서 바람소리가 나므로 음색의 부족함을 채우고 탄력성을 가지도록 스타카토로 발성지도 한다”(p. 28)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스타카토로 소리를 내면 직접적으로 횡격막과 복부 근육들의 쓰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일곱째, 고음이 나오지 않고 소리 내기에 부담 없는 가요나 뮤지컬 곡을 부르게 한다. 앞서 말했던 발성만을 하다보면 학생이 가창을 어렵게만 느끼고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흥미를 더해주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 노래에 대입해 발성을 가르친다.

4) 공명법

유오준은(2002) 변성기의 가창지도를 위한 연구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란 잘 울려나오는 음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잘 울려나오는 음성은 숨을 울림으로 바꾸어서 내보내는 것, 즉 ‘공명(resonance)’이라고 한다”(p. 28)고 이야기 하였다. 공명은 소리를 증폭 시키는 단계로써 공명이 잘 되면 소리는 울림이 생겨 저절로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명을 잘 하기 위해 큰 소리를 내는 것은 피해야한다. 공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음에서 가슴을 울림으로 사용하는 흉성과 중간 음에서 비강 위쪽으로 사용하는 중성, 고음에서 사용되는 두성이 있다.

문영일은(1994) 음성-이론과 활용에서 “공명은 소위 음의 최종 손질과 같은 것으로 좋은 공명은 자연히 좋은 음색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된다. 즉 소리의 좋다거나 나쁘다고 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공명의 좋고 나쁨에 기인한다”(p. 27)고 이야기 하였다. 공명을 잘 써서 노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노래는 고급스럽고 아름다워진다. 그럼 공명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소리를 누르거나 띄우지 말고, 입천장에 걸쳐지는 듯하고 비강을 울릴 정도의 느낌이 나게 소리를 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강을 울리기 위해 완전 콧소리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공명 공간을 무너뜨리거나 닫힌 상태가 되

어 공명을 방해하므로 잘못된 경우이다.

둘째, 하품하듯이 숨을 마시고 연구개가 올라가게 한다. 연구개가 올라갈 때 후두는 내려가게 되는데 후두가 다시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호흡에 신경 쓰고 주의한다.

셋째, 혀, 입술, 턱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 한다. 혀는 손가락모양으로 편히 놓아두고 입술은 자음 발음을 할 수 있게 힘이 풀려 있어야 하며 턱은 모음 발음과 머리 뒷간의 확보를 위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모음 발음을 제대로 해 목구멍을 막지 않도록 신경 쓴다.

다섯째, 정성은은 변성기 가창지도에 대한연구에서 “두성으로 시작하는 음부터 하행하는 순차진행 발성은 변성기 학생들의 교육에 긴장을 주지 않아 성대 보호에 도움이 되며 비교적 일관된 음색을 유지할 수 있다”(p. 43)고 이야기 한다. 이처럼 순차진행 발성은 변성기 청소년의 공명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여섯째, 살짝 웃는 얼굴의 미소를 띠어 광대뼈를 약간 들어준다.

일곱째, 어깨와 가슴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3. 음악교육에서 뮤지컬 활동의 의의

1) 뮤지컬 교육의 중요성

청소년 시기에는 과도기 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수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 교과목이 체육, 미술, 음악 이라는 과목을 제외하고서는 지루하고 따분한 수업들이기 때문이다. 그중 음악수업에서도 클래식장르를 고집하여 아이들은 어렵고 지루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김명심(2009)의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음악교육 또한 제고적인 변화와 수업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사회에 뮤지컬이 새로운 대중음악으로 선호되면서 교육적이고 학생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을 선정하여 음악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교

육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주당 1시간 수업으로는 음악교육의 부족함을 느끼며 2008년도 까지는 학생들 성적평가 기준을 타과목과 같이 9등급으로 구분하여 그나마 학생들이 음악과목에 관심을 보였지만 2009학년부터 예체능 과목은 성적평가를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평가하게 되었다. 청소년 시기에 전인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현실은 입시라는 문제로 인해서 점점 더 예체능과목이 경시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음악수업이 클래식 위주의 지루하고 따분한 수업보다는 보다 대중적이고 학생들에게 익숙한 활동적이고 재미있으며 창의적인 수업이 되어야 아이들이 조금 더 음악을 생활화하고 즐길 수 있게 된다. 2008년에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악곡 장르에 대하여 간단한 설문 조사를 했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 하는 곡으로 우리나라 가요 35%, 뮤지컬 28%, CF송, 드라마와 영화 OST 20%, 팝송 8%, 우리나라 가곡과 클래식이 9%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가 보여주듯이 학생들은 클래식 음악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루하다 등의 고정 관념에서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고 재즈나 크로스오버, 뮤지컬, 영화음악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서적 변화를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며 즐길 수 있고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음악 시간에 클래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재즈나 크로스오버, 뮤지컬, 영화음악 등을 적극적으로 학습에 접목 시켜야 한다(p. 22).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은 클래식 보다는 대중가요, 뮤지컬,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좋아 한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제도, 변성기, 신체적인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위축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창의성, 활동성,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서의 변화로 인해 음악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 음악수업의 큰 역할을 하는 가창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의 흥미는 더 없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르를 접목 시켜서 수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뮤지컬은 종합예술로 춤, 연기, 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수업을 접목함으로써 아이들은 음악성, 창의성, 활동성,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전개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과의 단체 수업 진행으로 분담을 나누어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고, 협동성과 잠재력, 책임감도 생기게 되는 좋은 수업이며 꼭 필요하다고 본다.

2) 뮤지컬과 타 예술과의 관계

뮤지컬 교육은 인성 교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성교육은 학생의 개성

존중, 적극성, 긍정적 사고, 미래지향성 을 갖는 것을 중요시 한다. 또한 상호작용 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념을 가지고 도덕적, 공동체적, 창조적, 생산적인 건강한 인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박찬수(2010)의 연구에서 보면 뮤지컬 교육이 학생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가져오며 적극적인 자세를 끌어내고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며 활동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발휘하게 한다. 또한 학생과 교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수평적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으며 뮤지컬을 새로 만든다는 것에 대한 가치 지향점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결국 공동체로서의 목표를 설정하여 활동함으로써 학생을 공동체적 인간,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건강한 인간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자아실현 관점에서 학생을 뮤지컬을 공연한다는 성취감으로 타도난 자신의 소질이나 능력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가능한 한 최대로 발휘하게 된다”(p. 11-12)고 이야기하고 있다.

윤주희(2010)의 예술과 통합하는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지향방안 연구의 설문지 조사 결과를 보면 뮤지컬 수업을 하고 난 뒤 학생들은 35.5%는 ‘흥미롭다, 재미 있다’ 였고, 32.5%는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발표, 표현력에 도움이 되었다.’ ‘예술분야의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의 순서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의 뮤지컬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공동체 적인 수업으로 자신의 장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내면 감정을 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연 후의 성취감, 자아실현, 위에서 말한 인성교육 등 과도기 적인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수업이다.

가. 뮤지컬과 연극의 관계

연극의 교육적 효용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부분과 예술양식 본질적 요소를 이해하는 예술이라는 점이다. 즉 교육과의 본질은

비슷하다.

정경림은(2009) 연극교육에 대하여 “본질은 바로 인간을 이해 한다는 것이다. 연극은 집단 창조 예술로서 각 분야의 개성적 역할을 존중 하면서도 전체의 목표와의 통합서이 어느 예술보다 강조되는 종합예술이다. 배우, 여러 분야의 스텝 등 공연에 필요한 각 역할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해야하기 때문에 토론과 타협이 필수적이며 자기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중요하다”(p. 12)고 연극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또한 “이러한 연극을 통한 교육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돕는 교육방법으로서 교수에 의해 고안, 계획되어 지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창조해 가는 주체는 학습자이다. 그럼으로써 연극을 통한 교육은 학습자의 적극성과 흥미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마련해 주어 학습자 스스로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지식에 대한 본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여 다양한 경험들을 학습자 관점으로 통합해내도록 이끌어 내는 과정을 만들어 준다”(p. 20-21)고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적인 부분으로 첫 번째 연극을 해보면서 상상력을 키워 그것을 구체화 할 수 있다. 두 번째 놀이라고 생각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아닌 주인공의 환경과 성격을 나타내 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다함께 소통하면서 협동심이 길러지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이처럼 연극은 교육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나. 뮤지컬과 무용의 관계

무용교육의 교육적 효용성은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경험해보고 신체 동작을 통해 느끼고, 이해하고, 종합적인 부분을 인지하게 한다는 점이다.

무용이라는 장르는 움직임에서 왔고 우리 삶을 표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적 세계를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나면 어깨가 들썩이거나 춤을 추게 된다.

최성욱은(2009) 대학생의 교양 무용수업 참여 동기가 생활 스트레스와 무망감 및 우울함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무용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역량들을 통합함으로써 조화롭게 작용한다. 무용은 내적자아와 외적현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의 의미를 더욱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각을 예민하게 만든다. 또한 무용의 기능은 사회 환경이나 사회 계급, 남녀노소 차이, 종교의식 그리고 무용을 하는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p. 11)고 이야기하고 있다.

무용은 신체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민첩성, 지구력, 평행성, 협응성, 정확성, 같은 부분들도 증진되며 자기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 혼자서의 작품도 있지만, 여러 명 이서 하는 작품들도 있어 그로 인해 협동심과 이해심, 배려심 등을 기를 수 있다.

다. 음악예술과 뮤지컬과의 관계

윤주희(2010)의 연구에 의하면 음악예술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음악 예술이 지니는 아름다움에 의해 이해와 감동을 통하여 인간 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정서를 순화하고 조화로운 인간형성의 터전을 닦고자 하는 것 이며 음악의 올바른 체험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함을 뜻하는 것 이다. 결국 음악교육은 학습자가 음악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고 학습자에게 다양한 악곡을 경험케 함과 더불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음악 활동을 통해 그들의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주고 정신과 인경 형성에 도움을 주러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음악교육을 음악적 활동을 통해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의 이해, 음악교육의 목적으로 한정 짓지 않고 그것을 학습자들이 생활하는 사회와 관련하여 생각 하고 수용하여 나아가 나와 나를 이해하는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 인식, 바람직한 사회화를 이끌어 주는 전인교육의 좋은 도구인 것이다(p. 41).

이렇듯 교육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인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음색과 가사, 선율, 리듬 을 넣어서 음악을 해봄으로써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갖게 하고 감상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감정변화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처럼 다양한 교육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인격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된다.

4. 뮤지컬 활동을 통한 변성기 가창지도 방안

뮤지컬에 포함되어 있는 춤, 연기, 무용이 사춘기의 과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본문 3-2)뮤지컬과 타 예술과의 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뮤지컬의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변성기 청소년들의 가창 수업에 접목해 보는 것이다. 즉 음악에서는 리듬, 화성, 가락 등에 대하여 학생의 음악 선호도에 따라 지도 방법과 표현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조정은, 2013). 자신의 소리를 싫어하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에게 본 연구자는 춤, 연기 즉 종합예술로 접근해보면서 음악교육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음악과 신체활동을 통한 자신 표현하기

과도기 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신체동작을 통하여 움직임 느끼고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움직임을 해보면서 협동심과 이해심, 배려심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변성기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창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즉 심리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창과 다른 장르인 무용을 통하여 접근한다.

신체활동을 통한 접근방법으로는 걸음걸이와 일상생활을 통한 마임이 있다. 마임은 근래에 공연이 활발해 지는 것으로 앞에 사물이나 상황 배경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있다고 가정을 하여 자신의 몸동작으로만 그것을 표현한다. 주제 선정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가 좋다. 아이들의 청소년기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이 있을까? 감정변화가 심한 아이들에게 사랑이나 질투 그리고 공부에 대한 압박감 등은 모든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공통적인 상담거리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상상이 가능한 주제를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를 가다 마주친 이상형
- 내가 좋아하는 남자아이의 여자친구

· 계속 공부하다가 잠시 쉬는데 들려오는 어머니의 잔소리

이외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교실을 걸어 보고 나의 걸음걸이는 어떠한고 나의 몸은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인가?

둘째, 신나는 음악이 나올 때 나의 몸은 어떻게 반응하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셋째, K-Pop 스타를 보면서 나는 집에서 앉아서 어떻게 반응하고 열광하는가?

넷째, 한숨을 쉴 때 내 몸은 어떻게 변화하며 어떠한 움직임으로 나타내는가?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표현해 봄으로써 여러 명 앞에서 자신의 자신감도 함양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했다는 자존감 또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해봄으로써 같은 공간속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공동체 의식도 갖게 될 것이다. 움직임을 해보았다면 이제는 노래를 틀고 기본 동작들을 해보면서 음악과 춤을 접목 시켜야 한다. 음악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줄여서 가창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이기에 움직임을 이용하여 음악에 대한 친근감을 갖도록 한다.

2) 음악과 연기를 통한 자기 소리 내어보기

연극에 있어서 자신의 소리를 내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성기의 학생들에게는 목에 무리가 안 되도록 하여 자신의 목소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말하는 연습을 하여 본다. 무용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낯선 대사를 줌으로써 연극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보다 보다 편안한 주제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 용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
- 시험기간에 독서실에서 일어나는 상황
-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 집안에서의 상황

- 시험이 끝난 후 친구들과의 뒤풀이 상황
- 핸드폰 최신형으로 바꾸어 달라고 부모님 조르는 상황

또다시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을 설정 하여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후 그에 맞는 이야기의 전개를 아이들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며 과도기 적인 성향을 표출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 그로 인해 선생님은 학생들의 고민과 생각을 알게 되고 소통하며 학생들과의 관계가 돈독해 진다. 이러한 과정은 정서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즉 상황에 맞는 연극을 해보고 자신감을 갖은 후 뮤지컬 넘버가 나오기 전 상황을 이야기 해본다. 그리고 이 곡을 어떠한 감정으로 표현했는지 알아본다. 그런 다음 학생들의 경험에 맞는 감정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뮤지컬 ‘모차르트’를 보면 모차르트에게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걸 이겨 냄으로 인하여 지금의 모차르트가 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접한 학생은 자신이 모차르트가 될 수 있고 입시라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곡에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이렇듯 학생들의 상황을 극중에 대입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실제로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뮤지컬은 연기를 하면서 바로 노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하듯 연기와 가창을 함께하여 노래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다.

3) 가창을 통한 표현하기

가창은 자신의 음색과 가사, 선율, 리듬 을 넣어서 음악을 해봄으로써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갖게 하고 감상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감정변화를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가창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은 청소년 시기에 신체적 변화와 정서적인 변화로 인하여 커지게 된다. 가창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노래에 어떻게 접목 시키는 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앞에서 제시한 방법처럼 무용의 신체동작과 연기를 순서대로 해보면서 음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더 나아가 가창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방법은 노래가사를 읽고 자신의 감정을 노래에 대입하는 방법이다. 무작정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다. 힘든 내용은 자신이 힘들었을 때를 떠올리고 행복한 부분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며 나의 경험에 접목시키는 방법이다. 황금별이라는 곡으로 예를 들어보자.



[악보 1] 황금별

은유법으로 생각을 해보자. 입시의 경쟁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힘들어 하고 있는 자기 내면의 본인을 왕으로 생각 할 수 있고 왕자는 입시라는 과정, 가창이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악보 2] 황금별

힘들다는 생각만으로 나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닫았고 이겨내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악보 3] 황금별

긍정적인 자신이 내면의 힘들어 하는 나에게 이야기 해준다.



[악보 4] 황금별

대학을 합격 하고 난 뒤의 자신의 미래나 노래를 잘하는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다.



[악보 5] 황금별

너만의 멋진 꿈을 정말 이루고 싶다면 지금의 힘든 순간들은 모두 너에게 배움터 그래서 너는 참고 이겨내야 해!!

위 [악보 5]처럼 자신만의 감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배운 춤과 연기

를 이용하여 노래 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여자의 음역대인 노래로 한 옥타브를 낮추어 부른다면 학생들에게도 편안한 곡이 될 것이다.

우선 실제 활동을 위하여 의자를 놓고 활동해본다. 즉 첫째 의자 위에 학생은 앉고 자신의 힘들어 하는 모습을 연기 한다. 둘째 의자에서 살며시 일어나며 힘들어 하는 내 자신은 의자에 계속 있다고 가정한다. 셋째 움직임을 해보면서 힘들어만 하는 또 다른 나에게 이 노래를 활용하여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들이 가창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 이러한 움직임, 그리고 감정을 이용한다면 가창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즐기게 될 것이다. 결국 노래의 내용과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접목 시켜 가창해보면서 두려움을 없애고 친근감을 유발하는 방법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넣게 한다면 노래라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 표출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 스스로 꿈이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두 번째는 뮤지컬 노래 중에는 음정보다는 말하듯이 대사로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들을 이용하면 뮤지컬 노래도 잘 표현할 수 있고 음악이 말하는 것처럼 합쳐져서 가사 전달력이나 감정 표현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한다. 변성기 학생들에게 가창이라는 접근 보다는 말하듯이 이야기 하는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비라는 곡을 살펴보겠다.



[악보 6] 나비

‘아주 먼 나라는 나라에 아름다운 나비가 살았어요’ 라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소리 내어 말하는 듯이 하라는 부분이다. 음정 박자를 꼭 살릴 필요는 없는 것이

다. 이 곳은 구연동화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 아이에게 대화를 해주는 듯이 이야기 해주는 부분이다. 뮤지컬은 이렇게 정해진 부분 말고도 말하듯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11

날 그는 - 강 물에 게 물 어 봤 죠 - " 누 나 " 어 디 로 가 나 -

요

[악보 7] 나비

‘어느 날 그는 강물에게 물어 봤죠. 누나! 어디로 가나요?’ 여기 부분은 조금 전 앞의 그림과는 다르게 X로 음정이 나온 것이 아닌 음표로 음정이 정확하게 기입 되어 있다. 성악이나 클래식과 다르게 뮤지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더욱 감정을 살리기 위하여 대사처럼 노래중에 사용할 수가 있다.

‘누나 !’ 부분을 정말 누나를 부르듯이 큰소리로 ‘누나 !’ 하고 말해주면 된다. 또 다른 부분을 보겠다.

나 도 - 알 - 려 줘 요 - 썩 웃 으 며 강 -

6 물 이 - 대 답 했 - 죠

[악보 8] 나비

악보에는 ‘나도 알려줘요 썩 웃으며 강물이 대답했죠’ 라는 부분이 있다. 이 부

분에서는 음역대와 상관없이 ‘씩~웃으며’ 부분을 강조하여 말하듯 실제 웃으면서 한다.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음악극이지만 연극, 무용적인 요소 등이 합쳐진 종합예술장르이기 때문에 노래 사이에 대화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움직임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뮤지컬 악보들을 중심으로 노래와 감정표현, 행동을 분석하여 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연습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현재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광주 SBS방송아카데미 연기, 뮤지컬 반 아이들 중 청소년기의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청소년으로 선택한 이유는 변성기의 청소년들이 노래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학생들보다 신체적 변화가 많은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하게 되었다. 다음은 연구대상에 대한 분포도이다<표 2>.

<표 2> 대상 분포도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학생	16	80
	여학생	4	20
연령	12세~14세	15	75
	15세~17세	4	20
	18세~19세	1	5
계열	뮤지컬	6	30
	연기	7	35
	무용	7	35
기간	5개월 미만	7	35
	5개월 이상	13	65
	합계	20	100

- 남학생의 비율이 80% 여학생의 비율이 20% 로 전체 응답자중 남자가 60% 더 많았다.
- 연령대는 12세~14세가 가장 많았다.
- 전공을 볼 때 연기 와 무용이 각각 35% 로 많았고 뮤지컬은 30% 정도이다.
- 기간은 5개월 미만인 35% 이고 5개월 이상이 65%이다.

2. 연구 절차

수업의 절차는 주2회의 수업으로 1개월 동안 8회의 진행을 하였고, 장소는 광주 SBS방송아카데미의 노래 강의실이 2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적은 관계로 3층 무용실에서 수업을 진행 하였다. 그리고 연구 목적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학생들 중 변성기의 학생들과 노래를 전공으로 하지 않는 연기, 춤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의 기준점을 잡기 위하여 노래를 두려워하고 그들 중 학원 등록기간이 짧은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 하였다.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의 가창과 뮤지컬에 대한 관심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표 3>.

<표 3> 가창과 뮤지컬의 관심도

설문 내용	그렇다		그냥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명	%	명	%	명	%
가창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좋아 하는가?	6명	30%	7명	35%	7명	35%
뮤지컬을 좋아 하는가?	13명	65%	7명	35%	0명	0%

이 설문을 통하여 뮤지컬을 전공으로 생각하는 6명의 인원 말고는 연기가 전공

이다 보니 노래에 대하여 관심도 없을뿐더러 가창에 대하여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인원이 7명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변성기가 온 학생들이인 관계로 가창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서 가창에 대한 두려움은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뮤지컬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은 조금 달랐다. 아이들은 뮤지컬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가창과 달리 뮤지컬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학생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이 뮤지컬을 통한 가창수업 연구가 청소년들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겠다.

수업진행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표 4>.

<표 4> 수업 진행방법

	세부 주제	수업내용	수업방법
1	움직임에 대하여 알아보자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표현해본다.	학생들끼리 서로 소재를 정하고 가장 공통적인 상황에 대하여 한명씩 나와서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움직여 본다.
2	움직임을 이용하여 춤추기	움직임을 이용하여 노래를 틀고 음악에 몸을 맡기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본다.	학생들의 소재에 맞는 음악을 선정한 후 음악을 틀고 몸으로 표현해 본다.
3	연극을 이용한 상황 극 해보기	학생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문화에 맞게 상황을 설정하고 각자 표현해 본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관심사나 일들에 대하여 상황을 설정한 후 표현해본다.

4	연극과 춤을 이용하여 음악에 대한 마음 열기	음악을 켜 상태로 연극과 춤을 이용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표현하여 본다.	음악 속에 연극과 춤을 이용해 개개인의 마음속을 표현해 보고 나머지 학생들은 단점이 아닌 장점만을 이야기 해줌으로써 피드백을 한다.
5	뮤지컬 곡 소개	뮤지컬의 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후 들어본다.	학생들에게 노래가 나오기 전의 상황과 스토리를 이야기 해주고 그 곡을 들어본다.
6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정 넣기	곡 해설을 해보면서 어떠한 감정으로 표현해야 될지 생각해본다.	곡이 나오기 전,후 의 상황을 알고 나의 어떠한 상황과 접목시키면 좋을지 생각해보 발표한다.
7	가사에서 대사로 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기	가창이라고 다가 가는 것 보다 연기와 춤이라는 다른 장르를 이용하여 다가간다.	가사를 읽어 보고 스스로 어떠한 부분에서 대사처럼 이야기를 하면 자신만의 감정이 더 표출될 수 있는지 찾아본다.
8	곡에 맞는 움직임과 연기를 이용하여 표현해보기	곡에 맞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넣어서 상대방에게 들려준다.	움직임과 대사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발표하고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다.

<표4>에서 보여 지듯이 본 연구자는 1개월 동안 8차시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주안점을 둔 것은 학생들의 가창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용과 연기를 통하여 가창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친숙하고 우리의 느낌과 행동에 포함된 예술장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려 하였다.

1차시 수업은 가창이라는 부분 보다는 무용을 이용하여 동선이나 움직임을 먼저 지도하였다. 아이들은 이 수업에서 자신들이 익숙한 움직임 ‘학교 가는 장면’, ‘화장실에 서의 일들’, ‘학교선생님께 별 받는 장면’ 등을 이야기 하며 처음에는 서로 수줍어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20명이 소통이 되어가며 자신의 움직임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웃으며 창의성과 활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2차시 수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음악을 틀고 거기에 본인이 생각 하였던 동작을 해보는 것 이었다. 이전의 수업을 통하여 자신감이 생긴 학생들은 원하는 음악에 맞추어 동작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리듬을 타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신들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거나 무릎을 튕기며 자연스럽게 음악과 하나가 되어갔다. 이러한 과정은 창의성, 활동성, 리듬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차시 수업은 연극을 이용한 수업 이었다. 연극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하는 정극의 느낌이 아닌 일상에서 하는 대화와 관심사에 접목하며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해보는 수업으로써 학생들은 ‘학교가기 전 부모님과 대화’, ‘용돈을 달라고 이야기 하는 상황’, ‘연애를 할 때의 사랑을 속삭이는 대화’, ‘평소의 친구들과 대화’ 등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감정을 표출해 내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처음에 머뭇거리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하였고 생각이 비슷한 학생들 끼리 팀을 나누어 그들이 상황에 대하여 표현해 보면서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 수업을 통하여 창의력, 배려심, 이해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었다.

4차시 수업은 그러한 상황에 음악을 접목 시켜보면서 2차시 수업과 같은 효과를 가져 왔다. 학생들은 이제 음악에 몸을 맡기며 말을 해보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학생들이 미소를 띠며 수업을 즐거워하였다.

5차시 수업은 뮤지컬의 곡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황금별과 나비를 학생들을 에게 들려주고 뮤지컬의 ‘모차르트’와 ‘스토리마이라이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곡에서 배우들은 어떠한 감정으로 이 노래를 다가갔고 어떻게 표현을 하였는지 이야기 해주는 이론적인 수업을 하였다. 학생들에게 예시를 들어서 선 시창 해줌으로써 호기심을 가져왔다.

6차시 수업은 황금별이라는 곡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감정을 설명해 주었다. 예시를 들어가며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의 감정을 이야기 하였고 불러 주었다. 남학생들은 여자의 노래이기 때문에 한 옥타브를 낮추어 자신들의 음역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노래를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할 때 힘들어 하는 모습, 용돈이 부족하여 고민하는 모습,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 이성관계에서 힘들어 하는 모습 등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표현을 하였으며 소품을 사용하여 노래를 불러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움직임 을 사용하여 자신감 있고 즐겁게 가창 하였다. 학생들에게는 가창에 대한 불안함 보다는 춤과 연기라는 부분처럼 예술의 한 부분으로 느끼게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7차시 수업은 음정보다는 대사처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나비’라는 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가 갔다. 학생들은 가창은 음정이 있고 딱딱하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노래에서 가사처럼 말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야기도 해보고 구연동화 하듯이 소리도 내보면서 점점 흥미를 갖고 즐거워하였다. 동선도 넣어보고 어떠한 부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학생들은 협동심이 길러졌고 서로 소통하며 가창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8차시 수업은 그 동안의 수업에서 했던 곡 중 자신 있는 곡을 이용해 움직임과 연기를 통합하여 발표하고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학생들은 첫 시간에 비하여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였다.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가창시간이지만 가창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즐거워 한다는 것 이였다.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

리도 내어보고 다른 학생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서로 소통이 된 것 같다.

교사가 칭찬을 선택한 이유는 공연 후 피드백을 하게 되었을 때 단점을 이야기 하면 청소년의 과도기적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칭찬을 통하여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하였고 연구를 통하여 효과를 알 수 있었다.

3. 자료 처리

본 논문은 조사 결과를 위하여 편이상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의 일반적 방법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뮤지컬의 관심도는 이전에 비하여 높아 졌고 자신의 성격이 밝아졌다는 부분도 100%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뮤지컬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활발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부분도 95%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는 뮤지컬은 표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게 되고, 더욱 활발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부분에서는 과반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창의성이 길러졌고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고 하였다.

이 연구 결과 뮤지컬은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수업을 한 학생들 모두가 가창에 대한 두려움을 없어졌고, 95%의 학생들은 친근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학생들에게 단지 가창이 아닌 다른 장르를 통

하여 접목 하였을 때 가창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즉 짧은 연구기간이었으나, 가창활동이란 교사의 적극적인 교수 전략과 선별적인 악곡선정에서 높은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사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였을 때 학생들이 이 감정을 느끼면서 표현력과 잠재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가창에 대한 친근감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창의성, 활동성, 표현력과 사고력, 잠재력과 책임감등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밝고 건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도기적이고 신체적으로 변성기라는 과정을 통하여 가창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시간에 부르는 어려운 노래들이 아닌 가창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예술인 뮤지컬을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감정을 표출하는 음악활동은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창 활성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V. 결론 및 제언

변성기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창시간은 심적으로 두려워하는 시간이 되곤 한다. 학교에서 음악수업은 가창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가창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성법과 악곡 분석에 대한 지식적인 활동을 줄이고, 학생들의 활동 위주이면서 음악적 흥미나 선호내용을 참고해야 한다고 본다.

음악흥미는 음악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 정도와 음악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조정은, 2013).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곡 중심으로 가창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변성기의 어려움과 다양하지 못한 표현의 제약이 있어 따분하고 재미없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과도기적인 시기를 거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음악시간은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의 변화에서는 음악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음악시간에 나오는 클래식이나 국악에 대한 반응보다 재즈, 뮤지컬, 대중음악 등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음악적인 흥미나 선호도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김태연, 2012; 박찬수, 2010).

김태연(2012)은 중1 음악교과의 가창영역 학습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가창에 대하여 음악시간에 나오는 클래식이나 국악에 대한 반응보다 재즈, 뮤지컬, 대중음악 등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중. 고등학교 음악수업에서 가창, 기악, 감상, 창작 등의 학습은 학생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다양한 음악 작품들을 접함으로써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능력을 기르게 된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창활동은 자기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마음껏 성장시켜 주고, 풍부한 감성과 안정된 정서를 갖추게 하며, 심미적 체험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데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음악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가창은 음악의 수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창 활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요성만 인지할 뿐 우

리가 연구 하는 부분들이 과연 학생들의 심정적 변화에 적절한 방법인가는 음악교육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뭔가 다른 시각이 필요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발성법과 교재연구가 아닌 새로운 방향의 접목으로 뮤지컬을 통해 학생들이 가창에 대하여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뮤지컬이라는 종합예술장르는 학생 개개인의 개성존중, 적극성과 긍정적사고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변인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도덕적, 공동체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8차시의 수업을 진행해 보았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성기 가창활동은 다양한 표현에 도움이 된다.

변정자(1988)는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 가창은 아동과 학생들이 음악과 가장 자연스럽게 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창은 음악에서 중심적인 존재라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뮤지컬을 통해 가창은 자신만의 음색으로 감정을 표출하여 상대방에게 이야기 해주는 또 다른 의사소통이며 다양한 표현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창에서 음악적 흥미가 중요하다.

청소년 시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경험한 음악을 내면화하게 음악흥미를 키워 나아가야 할 때 이다. 청소년기로도 불리는 사춘기는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성적 기능이 활발해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생식기능의 완성이 시작되며 후두의 발달로 인해 목소리가 변화된다. 심리적으로는 청소년 시기에는 성적 기능의 발달로 감수성과 흥분성이 높아져 정신적 동요가 심해지는 때이다. 이시기에 중학생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동경하는 이상과의 거리감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변성기 때의 심리적 변화를 사춘기라고도 부른다. 또한 신체적 변화로 인해 정신적 갈등을 나타낸다.

권이중(1997)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음악과의 대화로 탈피하고 상호간의 대화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신뢰성 및 공감대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청소년기의 급격한 변화에 있어서 음악은 공동체 의식,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시선의 탈피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청소년 가창지도에서 뮤지컬 교육의 효용성이다.

박찬수(2010)는 뮤지컬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제작과정 연구에서 학생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자세를 끌어내고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활동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발휘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뮤지컬교육을 함으로 인하여 자아실현과 자신감 그리고 창조성, 긍정적 사고, 자신의 감정 표출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사춘기의 극복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뮤지컬교육을 함으로 인하여 자아실현과 자신감 그리고 창조성, 긍정적 사고, 자신의 감정 표출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사춘기의 극복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넷째, 뮤지컬과 음악의 생활화이다.

이경민(2012)은 음악을 생활화 한다는 것은 학교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예술적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로 하여금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음악은 우리의 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음악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얼마나 인식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뮤지컬은 종합예술로 무용, 연기, 노래가 접목되어 있는 종합예술이다. 이 장르를 통하여 가창보다는 신체표현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였고, 이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들끼리의 친밀감과 자존감, 창의력, 가창에 대한 두려움 극복 등 가창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는 지에대한 효과를 나타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창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35% 그냥 그렇다 35%로 70%의 학생들이 뮤지컬수업을 통하여 가창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고 노래하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렇듯 뮤지컬을 통하여 가창활동을 할 경우 변성기 청소년들에게 가창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본 연구자는 뮤지컬을 가창학습에 활용하여 노래하는 것과 표현하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8차시로 계획하였지만 학생들의 성격과 환경이 다르고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 이다. 또한 공간의 제약에 있어서 움직임과 자신의 표정을 알기 위하여 넓은 공간과 거울이 있다면 더욱 자신의 신체활동과 함께 자신감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뮤지컬 영역은 교재와 교육시설이 빈약하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시간 속에서 모든 부분을 하기에는 시간의 부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방과 후 수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자재보급, 수업교실 확충, 등을 해결하여 변성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이 연기와 춤을 지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기, 무용 선생님과 함께 조를 이루어 수업을 한다면 더욱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다. 교사는 주입식 가창 수업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시선에서 존중하며, 서로 소통하는 교육 방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뮤지컬을 통한 교수전략을 연구해본다면 학생들의 가창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음악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커지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덕원 · 석문주 · 최은식 · 함희주(2008). **개정판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 권이중(1997). **청소년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교육과학기술부(2012).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명심(2009). **뮤지컬 창법에 대하여- 여러 뮤지컬 작품을 통한 창법의 종류와 발생**.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 김은정(2009). **변성기 학생들의 효율적인 가창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아(2012). **미디어 음악**.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태연(2012). **중1 음악교과의 가창영역 학습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정(2007). **발성법 강의노트**. 서울: 작은 우리 출판사.
- 대한간호학회(1997). **간호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문영일(1987). **기초 음성학과 발성기법**. 서울: 청우.
- 문영일(1990). **음악교수법**. 서울: 청우.
- 문영일(1991). **음성과 언어**. 서울: 청우.
- 문영일(1993). **아름다운 목소리**. 서울: 청우.
- 문영일(1994). **음성-이론과 활용**. 서울: 청우.
- 문영일(2004). **호흡과 발성**. 서울: 청우.
- 박세원(1997). **코르위봉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박찬수(2010). **뮤지컬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제작과정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변정자(1988).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삼호출판사.
- 유덕희(1981). **음악교수법**. 서울: 정음사.

- 유오준(2002). **변성기의 가창지도를 위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주희(2010). **예술과 통합하는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지향방안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경민(2012). **고등학교 음악의 생활화 학습지도 방안**.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화(2011). 변성기 남자 청소년을 위한 가창 지도 방법. **교과교육학연구**, 15(2), 577-601.
- 전혜림(2008). **변성기 중학생의 효율적 가창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 2학년 남학생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경림(2009). **초등학교 교육과정 예술교육으로서의 교육 연극 통합수업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성은(2007). **변성기 가창지도에 대한 연구 : 중학생을 중심으로**.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정은(2013).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 정서지능, 음악흥미의 관계 분석. **음악교육공학**. 16. 161-178.
- 주낙우(2006). **변성기 학생들을 위한 음악수업 및 가창지도법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태호(2007). **뮤지컬 체크리스트**. 서울: 남지사.
- 채선영(2012). **통합적 음악교육으로서 뮤지컬 만들기 활동**.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최성욱(2011). **대학생의 교양 무용수업 참여 동기가 생활 스트레스와 무망감 및 우울함에 미치는 영향**.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최순이(2009). **고등학교 뮤지컬 교육 활성화에 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Bering, R.(2006). *Schnellkurs musical*(뮤지컬 한눈에 보는 흥미로운 뮤지컬의 세계). 김태은 역(2008), 서울: 도서출판 예경.

Roma, L.(1975). *The Science and art of Singing*(발성의 과학과 기법). 오현명 역
(2008), 서울: 음악예술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2013년 7월
23일 검색함.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3650200>, 2013년 7월 28일
검색함.

부 록

<부록 1> 설문지 빈도분석

<표 5> 설문지 빈도 분석

설문내용	응답내용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뮤지컬에 대하여 관심도가 높아 졌는가?	20	100%	0	0%
2. 이번 수업을 통하여 자신이 밝아진 것 같은가?	20	100%	0	0%
3. 활발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는가?	19	95%	1	5%
4. 나를 적극적으로 표현 했는가?	16	80%	4	20%
5. 나의 속마음을 표출할 수 있었는가?	17	85%	3	15%
6. 스트레스 해소가 되었는가?	20	100%	0	0%
7. 가창은 두려운 장르인가?	20	100%	0	0%
8. 가사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였을 때 떨림이 있었는가?	17	85%	3	15%
9. 가창이 어렵지 않고 친근한가?	19	95%	1	5%
10. 친구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 할 수 있는가?	14	70%	6	30%

설문지 1

1. 가창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냥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2. 뮤지컬을 좋아 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냥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설문지

1. 뮤지컬에 대하여 관심도가 높아 졌는가?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2. 이번 수업을 통하여 자신이 밝아진 것 같은가?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3. 활발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는가?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4. 나를 적극적으로 표현 했는가?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5. 나의 속마음을 표출할 수 있었는가?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6. 스트레스 해소가 되었는가?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7. 가창은 두려운 장르인가?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8. 가사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였을 때 떨림이 있었는가?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9. 가창이 어렵지 않고 친근한가?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10. 친구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 할 수 있는가?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부록4> 연구 수업 사진

